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에발 산과 그리심 산

(여호수아 8:30~35)

이종윤 원로목사

구약성경 중 율법의 심장부는 신명기다. 신명기의 핵심은 저주와 축복, 즉 저주받을 죄와 복 받을 순종을 기록한 신명기 27 - 30장이다. 구약에 가득 찬 축복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조건 없는 축복과 조건 있는 축복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조건 없는 축복이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1 - 2).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조건없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 “내 말을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요...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라” 하셨다(신 11:26 - 28, 28:1,15 이하). 이것은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것은 조건 없는 복이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약속된 복이나 아니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조건 있는 복이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19 - 20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고 선포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다.

I.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낳는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설교에서 뿐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여호수아가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서 특별한 행사를 통해 저주와 축복의 길을 반복해서 선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고와 아이 성을 점령한 후 그들은 자동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올 것을 말했다.

“모세가 그 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

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신27:11 - 15).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아이 성을 점령한 후 이스라엘을 각각 여섯지파로 나누어 그리심 산에서 12가지 축복을, 에발 산에서 12가지 저주를 외치게 하고 온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다.

세겜에 있는 이 두 산은 지금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푸른 숲과 저주받은 황폐한 산으로 남아 있다. 순종은 축복을, 불순종은 저주를 낳는다는 이 크고 중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은 아이 성에서 아간의 경우를 통해 확인시켜 주셨다. 예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결과는 그들은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예리고보다 작은 아이 성에서는 참패를 당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철저하고도 계획적인 순종이 요구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모든 사사들과 왕들의 흥망성쇠가 여기에서 기인했고 앗수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나 귀환의 축복,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게 망하는 일도 결국 군사력이나 정치적 힘이 크고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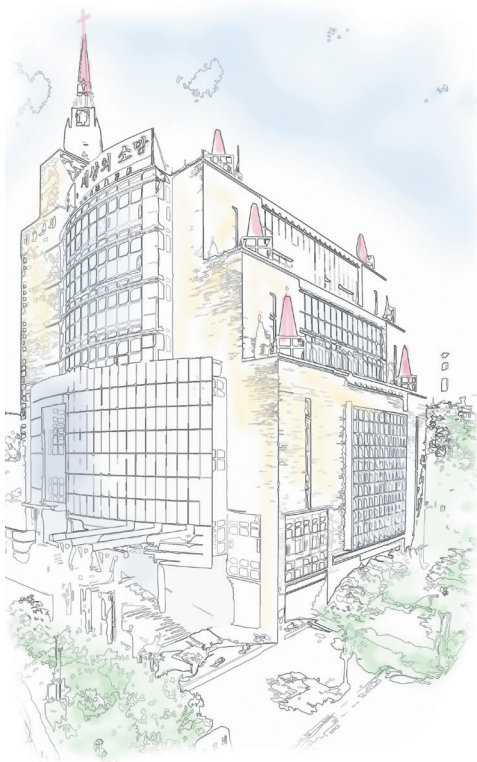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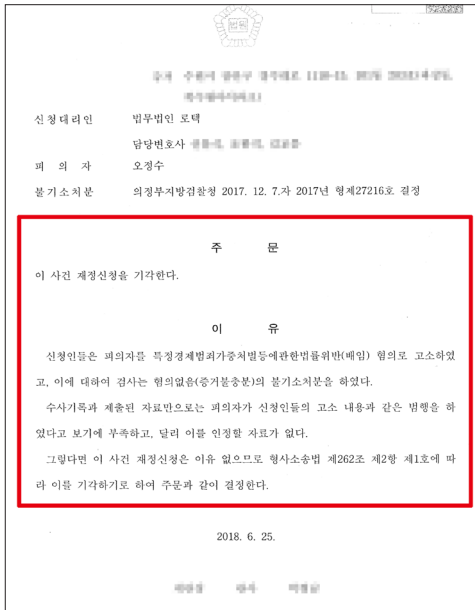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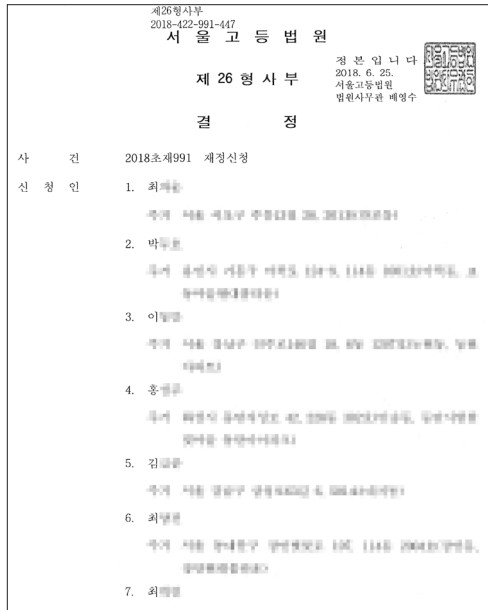
II. 에발 산에 단을 쌓으라

본문 30 - 35절을 읽게 되면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이스라엘 12지파 백성과 본토인과 이방인이 다 모인 가운데 모세가 정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낭독했다. 30 - 31절에 의하면 이 같은 일을 하기 전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2 - 8절에서 이미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모세의 율법이 돌 위에 새겨지고 레위인들이 크게 암송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이 세워졌다. (다음 주 계속)



오정수 장로 상대 아가페타운 부지 고가매입 고소건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지난 6월 22일 박노철 목사가 이종윤 원로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고소건 관련 재정신청 건이 서울고등법원(제29형사부)에서 기각된 데 이어 지난 6월 25일 서울고등법원(제26형사부)은 박노철 목사측 장로들이 오정수 은퇴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가법 상의 배임 고소건 관련 재정신청사건(2018초재991)에 관하여도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들 재정신청인들은 오정수 장로가 아가페타운 부지를 시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구입하여 교회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검찰청은 지난 2017년 12월 1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정신청을 한 사건에 관한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결정문에서 수사기록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오정수 장로가 고소내용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노철 목사측 장로들이 제기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박노철목사 측에서 즐기차게 오정수장로가 아가페타운 부지를 부당하게 고가매

입을 하였다고 제기한 의혹은 전혀 근거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박노철 목사측 장로들은 오정수 장로뿐 아니라 이미 이종윤 원로목사와 당시 재정위원장 노송성은퇴장로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서 지난 5월 18일 모두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5월27일자 순례자 2면 기사 참조).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결정이 나올것으로 예측하였는지 이들은 다시 오정수 장로는 물론 이종윤 원로목사와 역대 사무국장을 맡았던 서문석 장로, 오광환 장로, 유태서 집사와 재정위원장을 맡았던 노송성 은퇴장로및 경리담당이었던 이만순 권사 등이 공모하여 교회재산 110억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하여 계속 교회 내에 어떤 재정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의혹제기를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인데 부디 이번에도 이러한 의혹제기가 아무런 근거없는 음해성 고발이었음이 조속히 밝혀지도록 여러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재용/김재령 손순형 김동건/신소영 윤춘섭
 송성태/최정숙 김광태/최종희 박정자 서명철 전성희
 전화진 한대석 한세희 한세아 임광호/김정미 오천수
 이만구/권성자 최유현 구진영 손형호/박혜옥 문분순
 이흥숙 정수길 윤요섭/안재희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영아부 교사모집

현재 교회는 영아부 교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새생명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해주시길 교사를 모집중이다.

- 교육위원회 김혜연 집사 010-3923-9913
- 영아부 부장 이갑연 집사 010-4205-7848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2018 농촌전도대

교회를 섬기는 교회

한대석 집사 (2018 농촌전도대 교회학교 팀장)

살롬~ 하나님의 평화가 서울교회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울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2018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고성지역에 농촌전도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의료봉사, 이미용봉사, 축호전도 등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특히 서울교회 다음세대들은 농촌지역의 다음세대들을 위해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해서 봉사를 합니다.

다만 교회상황이 여의치않아 기본적인 많은

물품들을 새롭게 구매하거나 준비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 혹 집에서 쓰다 남은 색연필, 물감, 크레파스와 아이들이 자라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총이나 물풍선이 있으시면 15일 주일까지 1층 102호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부름받은 서울교회가 쉽없이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하나님의 평화가 서울교회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고 서춘식 집사님을 추모하며

가장 위대한 유산

고 서춘식 집사님의 마지막 흥해작전예배

서현아 집사

돌아가신 아버를 그리며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워낙 건강하시고 밝으셨던 아버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 부름 받을 줄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 위에 좋은 것으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감사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돌아 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 동안 아버를 간호하면서 나누던 대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사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 주신 귀한 시간이었음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가 젊었을 시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해서 엄마도 힘들게 하고 자녀들까지 아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미안하다"고.....

그 때 저는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여지껏 고생고생하며 살다 이제 늙은이에 암까지 걸려 원망하는 삶이 될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지 않으시고 삶을 정리하고 회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에 나는 너무 감사해. 언제 천국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 해야 할 것 있으면

회개 하고 이런 시간 주심에 감사하자. 아빠 남은 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삶이 되면 참 좋겠어."

아빠 역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싶다 하셔서 의사가 만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흥해작전 시작하는 날만큼은 꼭 가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교회를 가셨습니다. 아빠는 암이라는 질병을 통하여 다시 인생을 되돌아 보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뜻에 감사하며 순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 서춘식 집사

질병 치료를 위한 물질과 육신은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움직일 수 있어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과 체력도 허락하셨고, 남은 시간동안 암마랑 더 알콩달콩 보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장례에 필요한 장소 여건 모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준행하고 계시구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빠와 함께한 마지막 날, 6월 23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 속에 저 역시 지금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싶어 교구 목사님께 심방을 요청드렸고 예배와 기도로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시며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순례자와 주보 등 교회인쇄물 들어갔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의지적으로 붙들고 계셨습니다. 순례자, 주보 모두 인쇄 들어갔다는 확인 후 그때부터 마음을 놓으시고 '내 영혼이 은총이며' 찬양을 계속 들으시며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외치시다가 하나님 앞에 더 죄짓기 전에 이젠 가야겠다 하시며 잠 드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버의 말씀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곁에서 이제 평안히 가라고 세상에 미련과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시라고 말씀하시며 아빠 곁에서 끝까지 기도해주시는 모습 속에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운데서도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엄마 역시 곁에서 이제 평안히 가라고 세상에 미련과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시라고 말씀하시며 아빠 곁에서 끝까지 기도해주시는 모습 속에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운데서도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방금까지 고통을 느끼셨던 아버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곤 평안히 주무시며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빠, 나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고마워. 나 위해 기도해 줘서 고마워. 지금도 아버지께 그 말이 가장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유산이구나!!! 정말 뼈속 깊이 느껴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안계셨다면, 내가 안 믿었다면,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절망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았을까 싶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사랑으로 장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서울교회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빠가 마지막에 하시고 가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장례 모든 상황 가운데 교회분들 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슬퍼해 주시고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힘든 장례절차까지 나서 주시고 이런 저런 모습들을 보며,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을 보고 너무 감사하다며 저번 주일 기쁜 맘으로 나서서 저의 남편이 교회를 갔습니다.

이것까지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 확신이 되기에 앞으로 저의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도 문득 문득 아버가 생각나고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어제 비 온 뒤 맑게 개인 하늘 속의 하얀 구름을 보며 왠지 아버가 보고 있을거 같은 마음에 살며시 미소가 지어지면서 "아빠 아프고 힘들지 않지? 천국 좋아? 나도 아빠 보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서 해야할 사명이 많아. 알지? 사위 하나님 믿게 해야지. 주의 일 잘 감당하고 같이 천국 가서 보자!" 그냥 아버 마음이 느껴져 대화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종윤 목사님까지 오셔서 천국환송 예배해주시고 교구 목사님 계속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교회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장례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가시는 마지막까지 예배자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것을 빚졌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참 좋은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한 백성으로서 저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귀한 신앙생활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내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윤춘섭 성도 (16교구)

20년 이상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던 교회공동체를 떠나 세상에서 산 지 8년이 지난 2016년 어느 날, 절망과 쓰라림과 패배와 아픔과 슬픔속에 있던 나는 생각했다.

이제라도 내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헤세드(hesed,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와 에무나(emunah, 성실하심, 진실하심)로 나를 받아들이시리라 믿으며(시 89:1-2 등), 그리고 나의 죄악 되었던 반역자의 삶조차도 기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 되돌아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되돌아 갈 곳이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젊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더더욱 난감하고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고 과거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해도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을 가진 나와는 다른 교단의 교회이고 또 그 이유 때문에 나왔으므로 다시 되돌아 갈 수도 없었다. 참으로 고약한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 예장통합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6개월 만에 실패하고, 또 다른 예장통합교회에 1년 이상을 출석했으나 등록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1년 6개월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과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서너번 방문했던 서울교회 주일예배를 참석했다. 무슨 분쟁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점차 그 분쟁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을 깨달았는데, 1월 28일 3번째 주일예배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교회입니까? 내 꼴도 말이 아닌데...”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말씀이 삼하17:24-29 말씀이었다. 너무나 명백한 메시지였다. 암살범의 반역으로 요단강을 넘어 피난 가던 다윗왕과 백성 앞에 나온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래 세 사람은 다윗왕이 패할 경우 반역자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임할 죽음이러는 명백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너무도 의연하고 극진히 피난 가던 다윗왕을 대접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장면이다. 다윗왕에게 임한 고난이 이전에는 멀리 있던 다윗왕과 이 세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2:13)”. 교회의 고난이 나를 이 교회로 이끌었으며, 그리스도의 피가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깝게 하였으므로 고난 받는 주님의 백성들과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으라는 메시지가 분명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은 또 다시 주님께 대한 반역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주일 2월 4일 등록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교회회복을 위한 모

든 기도는 참석하리라. 그래서 그 날부터 교회회복을 위한 기도는 새롭게 재개한 새벽기도회를 포함하여 참석하고 있다. 새벽기도회 4번 빠진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외에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려는 이유는, 첫번째는 과거 10년 동안 못 드린 예배를 보충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는 과거와는 단절된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오늘에 이르렀다.

아래는 나의 사랑하는 서울교회 공동체에게 드리고 또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심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유1:24-25).

2018 상반기 간식 및 찬조 추가 명단

박혜옥 김인숙 송미령 김명숙 김혜란 김종자 최근자 한춘홍 이순영 김명화 박순복 김순영 최세정 유화자 최진이 이홍숙 장애순 심명숙 정금희 김정제 김준호 김미성 김민아 정미연

동정

■ 금주의 식사 : 마파두부(국산콩두부)

김혜연 집사 박은영 집사 가정 (이남북 권사님 심방 감사)
김진숙 권사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고성 대진중앙교회 농어촌전도를 통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고 명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 우리나라에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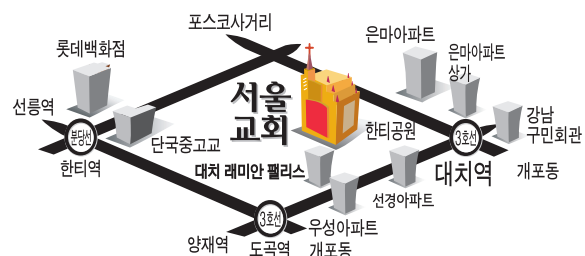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8일	주일	시 119:72-176		창 40-44	
7월9일	월	시 120-129		창 45-50	
7월10일	화	시 130-136		출 1-7	
7월11일	수	시 137-143		출 8-13	
7월12일	목	시 144-150		출 14-19	
7월13일	금	잠 1-3		출 20-25	
7월14일	토	잠 4:1-6:19		출 26-29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